



# 연/합/감/리/교/회/한/인/총/회

## The Korean Association of United Methodists

선교총무: [wwjd21st@gmail.com](mailto:wwjd21st@gmail.com) 서기: [korean.association.umc@gmail.com](mailto:korean.association.umc@gmail.com)

보도자료 0703 2017

###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긴급모임을 마치고

인간의 성문제(Human Sexuality)와 관련하여 연합감리교회 교단의 변화에 대한 여러 예측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총회장:김광태 목사)는 ‘한인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모임을 6월 26-28일(월-수)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가졌다. 연합감리교회는 2019년 2월 특별총회에서 Way Forward Commission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통해 동성애 관련 입장을 결정하고, 2020년 5월 정기 교단총회(4년마다 열림)에서 교단구조 개편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교회나 목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결단, 하나님 나라와 예수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선하는 선택,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결단이 요구된다”고 김광태 목사 (총회장,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는 말했다. 장학순 목사 (총회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장)는 교단 동향에 대해 “총회 대의원의 42%가 미국 외에서 오고, 동성애 관련 교단헌법인 장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투표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 하지만 교단법을 어겼을 때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단내 진보파는 법을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장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내에서 진보, 보수 양극단을 배제한 중도통합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교단 분리 혹은 분열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 차원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목사 (워싱턴감리교회, 총회 현장개정위원장)는 “현재 연합감리교회에 소속한 한인교회들은 지역에 따라 속한 연회가 다르고, 속한 연회에 따라 한인교회에 대한 선교와 목회적 배려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한인교회 미래를 위한 통일된 비전을 공유하기가 어려운 만큼 교단 내에 한인교회를 위한 제도적 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한인교회를 위한 선교연회 또는 선교구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현 목사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는 “선교(개척) 교회들이 계속 문 닫고 있는 현실에서 작은교회들을 보호해 주고, 목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선교연회가 가장 좋은 대안으로 생각되면서도 마음의 불이 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총회 미래대책위원장)는 “2019년 교단 특별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해도 한인총회의 정치역량이 너무 미약하다. 선교연회와 같은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역량도 미약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의지”라면서 “어떤 결정이라도 한인총회 내부의 뜻과 마음을 모아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수 감독(위스콘신 연회)은 “Staying with the trouble” (Donna Hathaway)이라는 말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진로에 대해 “현재 교단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피하기 보다 그 어려움과 함께 현존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모색하는 새로운 모험을 할 때”라며 “감독과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교회일치라는 성서적인 기초에서 모든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개회예배 설교를 통해 전했다.

선교연회를 조금하게 추진하다 보면 현재 한인총회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모임에 참가한 이들은 지역총회 연합회와 연회 한인코커스는 물론 차세대 목회 Nexus Ministry, 타인종목회자, 여성목회자 등과 함께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한 대화와 소통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한인교회를 위한 제도적 구조(선교연회 또는 선교구)의 가능성과 앞으로 한인교회에 끼칠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한 Task Force 를 조속한 시일 안에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wwjd21st@gmail.com](mailto:wwjd21st@gmail.com)  
Cell: 605-877-2040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관련 미디어 문의는 선교총무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장 김광태 목사
- 총무 윤국진 목사
- 부총무 신동훈 목사
- 서기 정요셉 목사
- 부서기 김호근 목사
- 회계 Sarah Hong 목사
- 부회계 채민정 목사
- 감사 유영래 장로

### 부총회장

- 서 부 (정현섭 목사)
- 동북부 (이용연 목사)
- 동남부 (정성호 목사)
- 중북부 (정건수 목사)
- 중남부 (임찬순 목사)

### 선교총무

- 류계환 목사

### 상임위원

#### 여성목회자

- Sunny Ahn 목사

#### 타인종목회자 협의회

- 박신애 목사

#### 차세대 Nexus

- Terah Yoo 전도사

#### 느헤미야 운동

- 이훈경 목사

#### 목회자학교

- 류재덕 목사

#### 평화위원회

- 장위현 목사

#### 역사편찬위원회

- 한상신 목사

#### 선교위원회

- 이승우 목사

#### 미래준비위원회

- 김정호 목사

#### 학원선교강화위원회

- 오치용 목사

#### UMW [ 여성교회 ] 대표

- 김리자

#### UMM [ 남성교회 ] 대표

- Richard Kim

#### 한인목회강화협의회

- 장학순 목사